

‘잘나가는 상사의 비밀노트’를 수강하고 나서...

A Secret Note of The Boss of Great Demand in Company



글 | 李寅弘

(Lee, In Hong)

건축시공기술사,
대림산업(주).
E-mail : ilee@daelim.co.kr

1. 서언

얼마전 회사에서 기술사법에 의거 CPD(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 7월까지 최소 9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안내를 받고 사이버과정으로 개설되어 있는 기본교육과목 중에서 하나를 골라 수강을 하게 되었다. 물론 그동안 내가 속한 회사에서 단계별로 제공되는 다양한 종류의 교육을 받아 왔었고, 기술사 자격증을 따지도 이미 17년 정도 지난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법에서 의무화한 기술사계속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다소 어색하기도 하였으나 이번 기회에 머리 속을 좀 새롭게 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 개설된 기본과정 중에서의 과목을 신청한 것이다. 이렇게 선택한 과목이 ‘잘나가는 상사의 비밀노트’이다. 늘 리더십 등을 운운하며 이미 조직 내 상사의 입장이 되어 판단해 왔던 사고의 틀에서 잠시 벗어나, 좁게는 회사의 조직원으로서 넓게는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처세법을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의도도 내심 가지고 있었다.

2. ‘잘나가는 상사의 비밀노트’의 내용 소개

‘잘나가는 상사의 비밀노트’의 핵심 주제는 ‘비서처럼 하라(Secretary Way)’이다. 삼성그룹 사장단의 47%가 비서실 출신이다. 직장인의 귀감으로 삼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롤모델(Role Model)이 비서이다. 따라서 이 과목은 비서처럼 하기 위해서, 즉 조직의 핵심인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역량 10가지’를 소개 설명하고 있다.

그 10가지 핵심역량을 열거하여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멀티플레이어(Multi-player)

출세하려면 일찌감치 팔방미인 즉, 다방면전문가(Multi-Specialist)가 되어야 하고 상사의 가려움을 꿰뚫는 저글링(juggling)능력을 가져야 한다.

② 충성심(Loyalty)

비서처럼 하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직과 상사를 비호하고 사수하는 '특별한 충성심'을 갖추어야 한다. 충성은 직장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요도리다.

③ 상사관리(Boss management)

상사를 그저 보좌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와 함께 성공하며 상사를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상사가 부리기 쉬운 부하가 되어야 한다.

④ Hard Work

'짜다'의 장점을 발휘하여 빈틈없이 일하고 모든 일이 나의 일이라 생각하고 하루를 48시간으로 쪼개어 업무에 올인하라. 모든 일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라.

⑤ 남다른 관점(Unique conception)

보스처럼 생각하고 보스처럼 의사결정하고 보스처럼 바라보는 균형잡힌 시야와 지평을 가져라. 주인의식을 갖고 모든 일을 하고 머슴근성은 버려라.

⑥ 정보력(Information power)

보스의 정책참모,야전사령탑의 정보담당관이 되어 정보를 수집하고 제안하는 정보력을 갖춰야 한다.

⑦ 화술(Verbal communication)

비밀을 지키고 험담은 피하며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자신의 의중을 전달하며 상대를 설득하고 신뢰를 얻어내는 비서화법을 체득해야 한다.

⑧ 굿매너(Good manner)

몸가짐이 바르고 겸손하고 사려깊은 태도로 상대방을 사로잡으며 나아가 힘이 있을 때 남을 도와주는 매너가 필요하다.

⑨ 감정콘트롤(Emotion control)

웃으면서 화내고 잔잔한 표정으로 상대를 뒤집어지게 하는 '감정조절능력'과 비서의 인내를 배워야 한다.

⑩ 인간관계(Human network)

인간관계는 곧 생명줄이다. 양보다 질을 구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자신의 인맥을 구축해야 하며 더구나 상사에게는 떠나더라도 다른 지인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 되라.

3. 결론

이상의 핵심역량 10가지를 거론하면서 결론적으로 '비하인드 전략'을 본 과목은 논하고 있다. 여기서 비하인드(Behind)는 '비서처럼 하라(비하)+그려한 마인드(인드)'의 합성어이다. 즉 비하인드 전략이란 '뒤에 숨겨져 잘 보이지 않지만' 회사의 핵심인재인 비서처럼, 자신을 핵심화하는 전략이다. 이것은 비서로부터 배우는 성공전략이며, 남에게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실천하는 숨은 전략이다. 회사의 관점에서 보면 전 사원을 비서처럼 핵심화시키는 경영전략이기도 하다.

기술사교육이라 하여 처음에는 기술적인 전문교육을 떠올렸으나 의외로 기본교육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본 과목을 선택했던 나는 한 달 동안의 사이버 교육 수강을 끝내며 교육과목 선택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술사 계속교육제도(CPD)의 필요성에 대하여 매우 공감하게 되었다. 물론 그동안 회사에서 기초적인 경영이론 등에 대해 교육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처세법에 대한 소양교육을 접하고 나니 그동안 내가 너무 기본적인 것에 소홀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이 기술사교육제도(CPD)가 잘 정착되어 전문기술인인 우리 기술사들이 전문기술업무능력은 물론 인문학적인 소양과 나아가 회사경영기법까지도 두루 갖추어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 되었으면 한다.

〈원고접수일 2009년 10월 7일〉